

# 무승 끊은 광주FC, 포항전 무승도 끊는다

5무 11패로 열세...내일 원정경기  
엄원상·펠리페 앞세워 첫 승 도전

전남은 9일 서울이랜드와 홈경기  
6경기 연속 무패 이어갈지 관심

무승 부진에서 탈출한 광주FC가 '속적'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첫승' 사냥에 나선다. 광주는 8일 오후 7시 포항스틸러스에서 포항과 2020 K리그1 15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앞선 인천 원정을 통해 광주는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엄원상의 멀티골과 펠리페의 쐐기골을 앞세워 3-1 역전승을 거두면서, 7경기 만에 승리를 신고했다.

1무 5패의 부진을 털어내면서 순위도 8위로 올라섰다. 광주는 분위기를 이어 포항전 무승 고리 끊기에 나선다. 광주가 K리그 무대에서 유일하게 승리를 거두지 못한 팀이 바로 포항이다. 16번의 대결에서 광주는 5무 11패로 열세를 보였

다. 아쉬운 패배들이 많았다. 지난 6월 26일 시즌 첫 대결에서는 경기 주도권을 쥐고도 0-2패를 기록하면서 첫승 도전을 다음으로 미뤘다. 8위 광주(4승 2무 8패·승점 14)는 오랜 시간 기다렸던 승리와 함께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매 라운드 자리가 바뀔 수 있는 뜨거운 순위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6위 강원FC(4승 4무 6패·승점 16)와 11위 FC 서울(4승 1무 9패·승점 13)의 승점은 3점차에 불과하다. 광주는 앞선 라운드 MVP에 등극한 '엄살라' 엄원상과 7골로 득점 5위에 랭크된 펠리페를 앞세워 포항 골문을 겨냥한다. 또 인천전서 이적 후 첫 도움을 기록하며 베스트 11에 오른 한희훈을 앞세운 수비진으로 포항의 공세를 막게 된다. 한희훈은 "지난 경기 승리로 얻은 게 많다. 선수단 역시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엔 제대로 강하게 부딪쳐보고 싶다"며 포항전 무승 탈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진섭 감독 역시 "다른 팀은 제쳐두고 포항은 꼭 이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 팀이다. 이기고 싶다. 도

전해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광주가 속적 포항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는 9일 오후 6시 안방에서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6경기 연속 무패를 노린다. 전남은 지난 제주 원정에서 아쉽게 3위 자리를 놓쳤다. 승점 2점 차의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승부, 선제골은 가져왔지만 동점골을 내주면서 5경기 연속 무패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라운드 결과에 따라 전남(4승 7무 2패·승점 19)의 자리가 달라질 수 있다. 제주(6승 3무 3패·승점 21)가 2점 차 3위로 전남 앞에 있고, 뒤에서는 서울이랜드(5승 3무 5패·승점 18)가 전남 자리를 노리고 있다. 전남은 올 시즌 경기당 0.62골을 허용하는 등 '잔물 수비'를 과시하고 있다. K리그2 10개 팀 중 8실점으로 유일한 한 자릿수 실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공격의 폭발력은 아니다. 앞선 13경기에서 13골을 넣으며 공격 순위는 7위에 머물고 있다. 전남이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영입한 공격수에 르난데스를 앞세워 공격의 아쉬움을 풀어내고, 무패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속적' 포항스틸러스를 상대로 '첫승' 사냥에 나선다. 사진은 앞선 포항과의 경기에서 드리블하는 펠리페(가운데)의 모습. <한국프로축구연맹제공>

## 토트넘 레전드들이 뽑은 MVP도 손흥민

"팀 위해 최고의 활약 보여 줬다"  
올 시즌의 선수 선정...5관왕

손흥민(28·사진)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전설들'로부터 2019-2020시즌 팀 내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았다. 토트넘은 6일(한국시간) "손흥민이 또 하나의 상을 추가했다"면서 "레전드가 선정한 올 시즌의 선수(Legends Player of the Season)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손흥민은 지난달 20일 이번 시즌을 결산하는 자체 시상식에서 4개의 상을 모두 받은 데 이어 팀의 레전드들로부터도 최고의 선수로 뽑히면서 '5관왕'에 올랐다. 앞서 받은 상은 '토트넘 올해의 선수'(One Tottenham Player of the Season)와 '토트넘 올해의 골'(One Tottenham Goal of the Season), '토트넘 주니어 팬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One Tottenham Junior Members Player of the Season), '공식 서포터스가 뽑은 올해의 선수'

(Official Supporters Clubs Player of the Season)다. 손흥민은 지난해에도 4관왕에 올랐지만 당시 '레전드 선정 올해의 선수'로는 무사 시소코가 선정된 바 있다. 자신의 한 시즌 프리미어리그(EPL) 정규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1개·11골 10도움), 공식 경기 최다 공격포인트(30개·18골 12도움) 기록을 새로 쓰며 맹활약한 이번 시즌엔 전설들도 손흥민에게 가장 많은 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유럽축구연맹(UEFA)컵, 잉글랜드 축구협회(FA)컵 우승 멤버인 그레이엄 로버츠는 투표한 토트넘 레전드들을 대표해 "이번 시즌 내 손흥민이 보여준 꾸준함은 눈에 띄었다. 해리 케인의 장기 결정 속에 그의 성장이 필요했는데, 확실히 해냈다"고 평가했다. 로버츠는 "손흥민은 팀에 많은 걸 주고, 열심히 하는 선수다. 그리고 항상 미소짓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가 올해 상을 받을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했고, 그는 철저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연습뉴스



## 전남공고 펜싱 전국선수권 값진 준우승



전남공고 펜싱부가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남고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남공고 펜싱부가 제32회 한국중고펜싱연맹회장배 전국남녀펜싱선수권대회 남고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준우승했다. 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공고 펜싱부(교장 박주정, 감독 김기완, 코치 선희성)는 최근 김천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 대회 남고부 사브르 단체전에서 발안바이오그에 26-45로 패해 은메달을 땀다. 전남공고는 전년 대회 우승팀이자 이번 대회 개인전 1-3위를 차지한 대구오성고를 8강에서 45-43으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이어 4강전에서는 대전송촌고와 맞붙어 초반 열세를 뒤집고 45-44, 극적인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올랐다. 전남공고 준우승은 돌보인다. 타 시·도 학교 펜싱

부보다 규모가 적기 때문이다. 박성범·서승현(이상 3년), 김민재·이강찬·김건우(이상 2년), 김형준·김상원·백민수·노승우(이상 1년)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훈련량이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기량 연마로 준우승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선희성 코치는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 학교에 감사하다"며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개개인에 적합한 훈련 방식을 택했고,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두번은 안 진다" 동강대 야구, 성균관대에 설욕

만루포 앞세워 8-7로 승리  
U리그 1차전 역전패 값아쥬

동강대가 대학야구 U리그 성균관대와 대결에서 만루포를 앞세워 설욕에 성공했다. 흥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는 최근 천안생활체육아구장에서 열린 '2020 KUSF(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대학야구 U리그' B조 경기에서 성균관대에 8-7로 승리했다. 동강대는 지난달 9일 열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성균관대에 3-7 역전패를 당했다. 하지만 두 번째 대결에서는 1회 만루포 등을 더해 5득점에 성공, 1차전 패배를 갱아쥬다. 설욕전을 끝낸 동강대는 10일부터 경희대, 흥익



대, 단국대와 대결한다. 인하대 포함 5개 팀과 B조에 속한 동강대는 조 3위까지 주어지는 왕중왕전 티켓을 노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올해 US오픈 테니스 우승상금 35억6000만원

올해 US오픈 테니스대회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이 300만달러(약 35억6000만원)로 책정됐다. 미국테니스협회(USTA)는 6일(한국시간) 올해 US오픈의 상금 규모를 확정해 발표했다.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지난해 385만달러에서 85만달러가 줄어든 300만달러로 정해졌다. 지난해보다 약 22% 줄어든 액수다. 올해 US오픈은 31일 미국 뉴욕에서 개막해 2주간 진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때문에 관중 입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금 규모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건 관중 입장이 제한되면서 각종 수입 역시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회 총상금 규모 역시 올해 5340만달러로 지난해 5720만달러에 비해 약 6.7%가 감소했다. 다만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탈락한 선수들에게 주는 상금은 지난해 5만8천달러에서 올해 6만1천달러로 오히려 5% 증가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2관	반도
3관	강철비2: 정상회담
4관	강철비2: 정상회담
5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6관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9관	강철비2: 정상회담
7관 세네카를	반도, 애니멀 크래커, 빅사크3: 웰리몬스터 대소동
8관 세네카를	다만 약에서 구하소서, 블랙아웃: 인베이션 어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람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No. 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베토벤 250시리즈 - NO.5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Prayer, 달의 춤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